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'2024 대구경북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'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 설명을 듣고 있다. 연합뉴스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.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했다.17일 통계청이 발표한 '4월 고용동향'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다.연령별로 보면 청년층(15∼29세) 취업자가 8만 9000명 감소했고, 40대 취업자도 9만 명 줄었다. 30대는 13만 2000명, 50대는 1만 6000명, 60세 이상은 29만 2000명 각각 증가했다.산업별로는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었다. 이는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다.실업자는 8만 1000명 늘어 2021년 2월(20만 1000명)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.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다.실업률은 3.0%로 1년 전보다 0.2%p 상승했다.